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왼쪽)이 9일(한국시간) 독일 니더작센주 볼프스부르크의 폴크스바겐 아레나에서 열린 VfL 볼프스부르크(독일)와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6차전에서 팀 동료 다넬 플레처(오른쪽)와 함께 볼프스부르크의 에디체코와 볼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역시 멀티플레이어

오른쪽 수비수 출전, 풀타임 활약 팀 3-1 승 견인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오른쪽 수비수로 변신해 풀타임을 뛰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박지성은 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독일 니더작센주 볼프스부르크의 폴크스바겐 아레나에서 열린 VfL 볼프스부르크(독일)와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6차전

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 풀타임을 뛰었다. 박지성은 지난 2일 토트넘 핫스퍼와 칼링컵 8강 경기(2-0 승)에 이어 출전한 경기에서 두 번 연속 90분을 모두 소화했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맨유는 헤트트리를 기록한 '윈더보이' 마이클 요던 덕에 3-1로 이겨 4승1무1패(승점 13), 조

1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맨유는 왼쪽 풀백 요원인 파트리스 에브라와 미드필더 마이클 캐리, 대안 플레처로 최근 유럽 무대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스리백 라인업을 꾸려 일단 중앙 수비부터 두텁게 세웠다. 애초 4-4-2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풀백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박지성은 오른쪽 윙백으로 나섰다.

박지성은 수비 부담이 커졌지만, 전반에는 적극적으로 공격에도 가담하면서 윙 포워드의 역할까지 해냈다. /연합뉴스

몬타노 고공 강타 주효 KT&G 선두 추격 발판

도로공사에 3-0 완승 선두 현대와 승차 좁혀 NH 농협 프로배구 여자부

여자 프로배구 KT&G가 도로공사를 꺾고 선두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KT&G는 9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계속된 2009-2010 NH 농협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경기에서 도로공사를 3-0(25-16 25-19 25-15)으로 완파했다.

시즌 5승2패를 올린 KT&G는 선두 현대건설(5승1패)과 승차를 좁혔다. 흥국생명명과 GS칼텍스가 중하위권으로 처진 가운데 KT&G가 현대건설과 새로운 양강 체제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반면 3일 GS칼텍스를 꺾고 신바람을 냈던 도로공사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KT&G는 1세트부터 몬타노의 고공 강타가 먹혀 공격을 주도했다. 초반부터 리드한 끝에

쉽게 세트를 따냈다.

2세트에서는 도로공사의 외국인 선수 밀라의 공격이 예리해져 애를 먹었다. 9-4로 앞서다가 밀라의 오픈 공격 등에 밀리며 연속 5점을 내줘 동점을 허용했다.

이후 18-18까지 팽팽하게 이어진 흐름을 몬타노의 강타로 바꿨다. 몬타노는 후위공격과 오픈 강타를 내리 꽂아 3점을 올렸고 백복화의 시간차 공격과 김은영의 가로막기로 세트를 마무리했다.

3세트에서도 초반에는 고전했지만 탄탄한 수비가 살아난 가운데 상대 실책이 겹치며 승기를 잡았다. 김사니, 몬타노의 가로막기 등으로 순식간에 5점차로 앞서고 24-15에서 몬타노의 후위공격으로 경기를 끝냈다.

도로공사는 밀라가 공격에서 실책(9개)을 연발한 탓에 추격 기회를 놓쳤다. 밀라를 대신해 공격의 활로를 열어 줄 마땅한 선수가 없다는 점이 뼈 아팠다.

몬타노는 양면에서 가장 많은 29점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다. 장소연은 가로막기 3개를 따내 승리를 도왔다. /연합뉴스



최근 준공된 여수 돌산신모지구 축구전용 경기장 모습.

여수 돌산 축구 전용경기장 준공

인조 3면·천연잔디 1면 갖춰 12~13일 개장기념 축구대회

여수지역 1만여 축구인들의 염원이었던 돌산신모지구 축구전용 경기장이 준공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축구장 개장 기념행사가 열린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돌산 신모지구 공영수면 매립지내 '축구장 조성사업'을 올 1월 착공, 48억7천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조구장 3면과 천연잔디구장 1면의 경기장을 최근 준공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김광훈 역도 첫 금 동아시아게임 남자 77kg급

김광훈(27·양구군)이 제5회 홍콩 동아시아게임 역도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김광훈은 9일 홍콩 라이치콕 공인체육관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77kg급 경기에서 함께 352kg를 들어 올린 2위 라오후이(중국)를 1kg 차이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 체급에는 김광훈과 베이징올림픽, 고양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69kg급에서 우승한 라오후이, 북한의 방금철 3명만 참가해 메달 색깔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김광훈은 인상 첫 시도에서 145kg를 들어 올리면서 손조름게 출발했다. 2차 시기 150kg, 3차 153kg를 모두 무리 없이 들어 올리면서 인상에서 중국의 라오후이(155kg급)에 2kg 적은 2위를 달렸다.

김광훈과 라오후이는 융상에서 본격적으로 겨뤘다.

융상 1차 시기 183kg를 든 김광훈은 2차 시기 194kg으로 무게를 늘려 2차 시기까지 합계에서 라오후이를 1kg 앞섰다. 하지만 2차에서 바벨을 들어 올린 뒤 지난 10월 전국 체전을 대비하며 훈련하다 다친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또다시 찾아왔다.

김광훈은 "융상에서 180kg 이상을 들면 팔꿈치에 무리가 간다"면서 "그렇지만 참고 경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셀틱' 입단 기성용 23일 출국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셀틱 입단을 앞둔 기성용(20)이 오는 23일 현지에 합류해 본격적인 주전 경쟁을 시작한다.

기성용의 매니저먼트사인 IP스포츠는 9일 "현재 올림픽 대표팀에 소집돼 훈련하는 기성용이 19일 일본과 평가전을 끝내고 23일 스코틀랜드로 출국한다"라며 "그에 앞서 21일 국내에서 셀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단식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10일(목)
 - ▲원아시나 슈퍼시리즈 호주 PGA 챔피언십 1R (11:30·SBS골프)
 - ▲V리그 <흥국생명 : GS칼텍스>(16:40·KBSN SPORTS)
 - ▲여자 프로농구 <KB국민은행 : 신한은행>(16:50·SBS스포츠)
 - ▲프로농구 <KCC : 동부>(19:00·MBCSPN), <삼성 : SK>(19:00·SBS스포츠)
 - ▲세계 여자 핸드볼 선수권 <대한민국 : 스페인>(19:20·KBSN SPORTS)

남성성기능강화제

본 성기능 강화제는 화분, 왕다,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채조하였으며 특히 알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나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는 임상실험결과가 있고 단백질 함량을 저장하는 힘을 동구어 근육을 강화해 해준다는 유리아프린틴을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화분의 효능이란? 생식세포를 말하는 것으로 식물이 가진 영양성분이 집약된 것입니다. 화분속에는 22종의 아미노산, 27종의 무기질, 18가지의 비타민 등 약 185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어려워 체외로부터 섭취해 주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화분속 단백질이 모두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한달 복용으로 1~5일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음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평소에 칼기는 피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사가 있는 분들을 성관계 약시간 전에 1장을 복용하면 1~5까지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평가가 권하 인지는 약기부원이 있으신분들은 1일 1정용 3~7일 정도 연속으로 복용하시면 열기가 살피며 화살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1정용 복용후 다음 날까지 열기가 살피며 화살한 효과는 12시간만 지속되며 1정용이 아닙니다.

상담전화: 010-7770-8138
농협 302-0136-6325-61(권옥연)

음성채팅의 신기원

대한민국 최초! 무료 음성커뮤니티, 탄생

진실입니다! 그동안 비싼 600 정보이용료나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대화서비스! 이런 옛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용료 무료, 회원가입비 무료

일반 전화요금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그대로 본인만 부담! 직접확인하세요!

1666-5425

문의전화 : 1588-3533

지역	소제지	면적(㎡)	건립가	최대가	비고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267/627	127억	82억	
	남구	217/449	27억	22억	
	남구	201/181	29억	29억	
	남구	147/249	87억	182억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421/1229	138억	6억	
	남구	268/272	53억	39억	
	남구	411/647	89억	425억	
	남구	384/1185	89억	257억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288/678	49억	225억	
	남구	178/814	255억	43억	
	남구	185/292	19억	193억	
	남구	85/108	62억	32억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105/224	159억	151억	
	남구	167/180	1억	78억	
	남구	204/155	84억	584억	
	남구	170/167	193억	425억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137/177	89억	29억	
	남구	182/202	22억	195억	
	남구	35/15	65억	464억	
	남구	50/12	1억	464억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215/170	225억	95억	
	남구	1385/409	1억	신건	
	남구	1440/105	225억	신건	
	남구	514/74	52억	신건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205/208	52억	355억	
	남구	185/140	52억	355억	
	남구	413/123	52억	355억	
	남구	215/170	225억	95억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105/224	159억	151억	
	남구	167/180	1억	78억	
	남구	204/155	84억	584억	
	남구	170/167	193억	425억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137/177	89억	29억	
	남구	182/202	22억	195억	
	남구	35/15	65억	464억	
	남구	50/12	1억	464억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215/170	225억	95억	
	남구	1385/409	1억	신건	
	남구	1440/105	225억	신건	
	남구	514/74	52억	신건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205/208	52억	355억	
	남구	185/140	52억	355억	
	남구	413/123	52억	355억	
	남구	215/170	225억	95억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105/224	159억	151억	
	남구	167/180	1억	78억	
	남구	204/155	84억	584억	
	남구	170/167	193억	425억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137/177	89억	29억	
	남구	182/202	22억	195억	
	남구	35/15	65억	464억	
	남구	50/12	1억	464억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215/170	225억	95억	
	남구	1385/409	1억	신건	
	남구	1440/105	225억	신건	
	남구	514/74	52억	신건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205/208	52억	355억	
	남구	185/140	52억	355억	
	남구	413/123	52억	355억	
	남구	215/170	225억	95억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105/224	159억	151억	
	남구	167/180	1억	78억	
	남구	204/155	84억	584억	
	남구	170/167	193억	425억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137/177	89억	29억	
	남구	182/202	22억	195억	
	남구	35/15	65억	464억	
	남구	50/12	1억	464억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215/170	225억	95억	
	남구	1385/409	1억	신건	
	남구	1440/105	225억	신건	
	남구	514/74	52억	신건	
군민사업(광주·전남 지역)	지리	205/208	52억	355억	
	남구	185/140	52억	355억	
	남구	413/123	52억	355억	
	남구	215/170	225억	95억	